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OECD 수출신용협약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 신설에 따른 영향

주요 동향

◇ OECD,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0.3%p 하향조정 한 3.0% 전망

- OECD는 2016년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1월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 한 3.0%, 3.3%로 예상
- 2015년 4분기 경제지표 부진과 연초 금융시장 불안 및 일부 신흥국의 환율변동과 과잉부채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이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
- 미국은 달러화 상승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부문 투자 저하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0.5%p 하향한 2.0% 성장 전망
- 유로존은 저유가의 경제효과가 아직 미약하고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가 투자 확대에 연결되지 못해 기존보다 0.4%p 하향한 1.4% 전망
- 중국은 이전과 동일한 6.5%를 유지했지만,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환율불안, 부채증가 가능성 경고

◇ 국제유가, OPEC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 1월말 배럴당 22달러까지 하락했던 두바이유 가격이 2월 OPEC 감산합의 기대감으로 급등하여 30달러선 회복(2.16. \$30.66/bbl)

※ 최근 1개월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bbl)

: (1.21일) 22.83 → (1.28일) 27.08 → (2.11일) 26.08 → (2.18일) 30.25

- 그러나 사우디,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4개국 회담에서 생산량을 지난 1월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합의에 그쳐, 상승폭 제한
- 금번 회담은 이란*이 불참한데다가, 생산량 동결 기준인 1월 생산량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어서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는 어려울 전망

*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생산량을 제재 이전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 표방

** 3대 산유국(러시아, 사우디, 이라크)의 1월 산유량은 약 2,550만b/d로 사상 최대수준

주요 동향

◇ 일본, 4분기 GDP 성장률 전기대비 -0.4% 부진

- 일본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로 2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

※ 일본 GDP 성장률 추이(% , 전기대비) :

1.0 ('16. 1/4) → △0.3 (2/4) → 0.3 (3/4) → △0.4 (4/4)

- 온난한 날씨로 동계의류 판매가 위축돼 **개인소비(0.8%↓)**가 부진했고 **주택투자(1.2%↓)**도 감소했으나, 설비투자(1.4%↑)는 2분기 연속 증가

- 한편, 1월 수출은 對중국 수출 감소(17.5%↓)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2.9% 하락**, 2009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 수출증가율(%) : 9.5('15.6)→3.1(8)→△2.2(10)→△8.1(12)→△12.9('16.1)

◇ 유로존, 4분기 GDP 전분기대비 0.3% 상승·성장세 둔화 지속

-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 전년동기 대비로는 1.5% 늘어났으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2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 양상

※ 유로존 GDP 성장률 추이(% , 전기대비) :

0.5 ('15. 1/4) → 0.4 (2/4) → 0.3 (3/4) → 0.3 (4/4)

- 독일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중국 경제 침체, 유가 하락 등이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S&P,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국가 신용등급 하향

- S&P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두 단계, 남미 대표 산유국인 브라질의 신용등급도 **BB+에서 BB**로 한 단계 강등

※ 사우디 : A+ ('15.11) → A- ('16.2), 브라질 : BB+ ('16.1) → BB ('16.2)

-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산유국들의 재정난 및 경제지표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해 하향 조정

① 외환시장

구 분	'15년말	'16. 2. 12	'16. 2. 19	전주비
₩/US\$	1,172.5	1,211.7	1,234.4	22.7
₩/100¥	974.1	1,077.7	1,091.8	14.1
CNY/US\$	6.4912	6.5739	6.5223	△0.0516
¥/US\$	120.4	112.4	113.1	0.7
US\$/€	1.0930	1.1300	1.1123	△0.0177

② 채권시장

구 분	'15년말	'16. 2. 12	'16. 2. 19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1.66	1.48	1.47	△0.01
미국 국채(10년)	2.27	1.66	1.74	0.08

③ 주식시장

구 분	'15년말	'16. 2. 12	'16. 2. 19	전주비
한국 KOSPI	1,961.31	1,835.28	1,916.24	80.96
미국 DJIA	17,425.03	15,973.84	16,391.99	418.15

④ 해운시장

구 분	'15년말	'16. 2. 12	'16. 2. 19	전주비
BDI 지수*	478	291	315	24
HRCI 지수**	449	446	444	△2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유 종	'15년말	'16. 2. 12	'16. 2. 19	전주비
WTI유 현물	37.04	29.44	29.64	0.20
Brent유 현물	37.28	33.36	33.01	△0.35
두바이유 현물	32.19	26.86	30.07	3.21

주간이슈: OECD 수출신용협약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 신설에 따른 영향

◆ OECD 수출신용 협약의 부속서로 신설('15. 11)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신용부문 양해”의 주요 내용, 국내 산업 파급 효과 및 당행 여신 정책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OECD 수출신용협약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의 주요 내용

- (국가·용량) 신증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국가, 발전 기술¹⁾, 전력보급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 (지원가능 국가) 아임계는 IDA 지원 적격국, 초임계는 IDA 지원 적격국 또는 전력보급률 90% 이하인 국가만 수출신용이 가능하고 초초임계는 제한이 없음. (참고 1, 2)
 - (지원가능 용량) 아임계는 300MW 이하(총 설비용량 500MW), 초임계는 500MW이하(1,000MW)만 수출신용이 가능하고 초초임계는 제한 없음.
 - (상환기간) 기존 12년에서 아임계, 초임계는 10년으로 단축하되 초초임계는 12년을 유지

<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의 주요 내용 >

		아임계	초임계	초초임계
압력·온도 또는 탄소배출량		압력 221bar 이하 850g/kWh 초과	221bar, 550℃ 이상 750-850g/kWh	240bar, 593℃ 이상 750g/kWh 미만
용량	Unit 용량	300MW 미만	500MW 미만	제한없음
	총 설비용량 ¹⁾	500MW 이하	1,000MW 이하	제한없음
지원가능국		IDA지원 적격국 ²⁾	IDA지원 적격국 ²⁾ 또는 전력보급률 90% 이하	제한없음
상환기간		10년		12년

주: 1) 아임계, 초임계의 경우 2 unit까지 허용

2) IDA지원 적격국은 '16년 GNI가 \$1,215 미만인 77개국. 단, 도서지역은 타당성 조사(저탄소 에너지 대안 적용 불가) 등을 수행후 IDA 지원 적격국외 국가도 지원 가능

1) 증기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아임계, 초임계, 초초임계압으로 발전

□ (사전통보) 승인에 앞서 최소 10일전에 사전통보

- 저탄소 대체에너지 적용가능여부, 발주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포함하는 사전통보 요구

□ (적용시기) '17년 1월

- 단, '17년 1월 이전까지 ① RFP가 발급되고, ② 환경·사회영향 평가가 완료되고, ③ 여신신청서가 ECA에 제출된 프로젝트는 유예를 허용

□ (향후 계획) '19년 6년말까지 석탄부문양해의 내용 재검토를 완료 하고 '21년부터 지원 요건을 강화한 2단계를 추진

-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 신기술 채택시 금융지원이 논의될 전망

2. 국내 산업 파급효과

□ (수주 현황) 아국기업의 주력시장은 동남아 아임계·초임계 시장이며 '14년 37억 달러를 수주

- 지역별 수주 비중('10~'14)은 아시아 47%(동남아 40%), 아프 리카 19%, 중남미 16% 순
- 국가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됨.
 - * 아국기업 석탄발전 수주(억불) : ('10)45→('11)31→('12)62→('13)63→('14)37
 - * 국가별 수주비중('10~'14): (베트남) 20.4%, (필리핀) 9.4%, (말련) 8.3%

□ (수주 경쟁력) 금융경쟁력 약화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 중국은 세계 최대 해외석탄화력발전 공금융 지원국중 하나로 '07 ~'13년에 131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 * 동 기간 일본은 75억 달러, 한국은 43억 달러를 지원
- 중국의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 비중('14)은 아시아 43.9%, 아프 리카 39.4%, 중남미 8.6%

- 중국 건설회사의 발전플랜트 국가별 매출비중('13)은 인도 12.7%, 베트남 8.0%, 인도네시아 6.2%, 말레이시아 3.1%, 필리핀 2.9%
- 최대 격전지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아프리카, 중남미는 양국의 진출국이 상이하나 중국이 내수시장 위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쟁심화 가능성 존재

< 한·중 해외수주 주요 지역 및 국가별 비중 >

지역	국가	한국	중국
아시아	지역 비중	47.1%	43.9%
	인도	7.4%	12.7%
	베트남	20.4%	8.0%
	필리핀	9.4%	2.9%
	말레이시아	8.3%	3.1%
	인도네시아	1.6%	6.2%
	태국	0.03%	n.a
	파키스탄	-	5.7%
아프리카	라오스	-	4.8%
	지역비중	19.2%	39.4%
	리비아	6.3%	n.a
	모로코	13.3%	n.a
	모잠비크	0.03%	n.a
	마다가스카르	0.03%	n.a
	이디오피아	-	2.4%
	수단	-	1.9%
	나이지리아	-	1.8%
	가나	-	1.3%
중남미	잠비아	-	1.3%
	지역 비중	16.2%	8.6%
	칠레	11.8%	n.a
	파나마	3.1%	n.a
	콜롬비아	1.3%	n.a
	에콰도르	-	5.9%
	베네수엘라		2.4%

주: 1)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수주액 기준('10~'14)

2) 중국은 건설회사의 해외 발전플랜트 Top 20 국가별 매출비중 기준('13)

3) 중국의 지역 비중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 적용('14)

자료: 해외건설협회, 중국해외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시장접근성) 아임계·초임계 시장 접근성이 제한됨.

- 아임계·초임계 프로젝트의 수출신용 지원 대상국에서 칠레, 터키 등이 제외됨.

< 주요 국가별 수출신용 지원 가능성 >

지역	국가	아임계	초임계	비고
아시아	인도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석탄화력발전 신증설의 대부분이 아임계이며 몇년전부터 초임계 가동 • '17년 이후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초임계압 기술 채택을 의무화
	말레이시아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아임계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의 70%를 차지 • 낮은 발전단가와 투자비, 송배전 문제로 인해 아임계·초임계 선호
	태국	X	X	
	베트남	○	○	
	인도네시아	○	○	
	몽골	○	○	
	미얀마	○	○	
	필리핀	○	○	
중남미	칠레	X	X	
아프리카	모로코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공은 '15년 최초의 초임계 발전소가동을 시작
	이집트	X	X	
	보츠와나	X	○	
	남아공	X	○	
유럽	터키	X	X	

- 참고 : 1. IDA 지원 적격국
2. 국가별 전력보급률

확인자	산업경제팀장 이 재 우
작성자	선임연구원 이 미 혜

참고 1

IDA 지원 적격국

지역	국가	국가
아프리카 (39)	베냉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부룬디	말리
	카메룬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코모로	르완다
	콩고 민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콩고 공화국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남수단
	감비아	수단
	가나	탄자니아
	기니	토고
	기니비사우	우간다
	케냐	잠비아
	레소토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아시아·태평양 (22)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통가
	캄보디아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라오스	베트남
	마셜제도	부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몽골	몰디브
	미얀마	스리랑카
유럽·중앙아 (5)	코소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중남미 (9)	볼리비아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그레나다	세인트 루시아
	가이아나	세인트 빈센트
	아이티	
MENA (2)	예멘	지부티

자료 : World Bank(2016)

지역	국가	전력보급률	국가	전력보급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앙골라	30%	말리	26%
	베닌	29%	모리타니	28%
	보츠와나	66%	모리셔스	100%
	카메룬	55%	모잠비크	3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	나미비아	32%
	코모로	69%	나이지리아	45%
	콩고	42%	Réunion	99%
	지부티	50%	르완다	21%
	적도 기니	66%	세네갈	55%
	에리트레아	32%	세이셸	97%
	이디오피아	24%	남아공	85%
	가봉	89%	수단	35%
	감비아	36%	스와질랜드	27%
	가나	72%	탄자니아	24%
	기니	26%	토고	27%
	케냐	20%	우간다	15%
	레소토	17%	잠비아	26%
	라이베리아	10%	짐바브웨	40%
	북아프리카			
	알제리	99%	모로코	99%
	이집트	100%	튀니지	100%
	리비아	100%		
아시아	중국	100%	베트남	97%
	인도	81%	필리핀	79%
	부루나이	100%	태국	99%
	캄보디아	34%	방글라데시	62%
	인도네시아	81%	몽골	90%
	라오스	87%	네팔	76%
	말레이시아	100%	파키스탄	73%
	미얀마	32%	스리랑카	94%
중남미	아르헨티나	96%	과테말라	90%
	볼리비아	88%	온두라스	89%
	브라질	100%	자메이카	93%
	콜롬비아	98%	니카라과	76%
	코스타리카	100%	파나마	91%
	쿠바	98%	파라과이	99%
	도미니카 공화국	97%	페루	90%
	에콰도르	97%	우루과이	99%
	엘살바도르	94%	베네주엘라	100%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Electricity Access database(2015)